

대구광역시 일보
Weekend

통일제국의 나라 경주 '2025 APEC' 마저 점령

마지막 전투다.
통일 조국 경주 '화랑 전사' 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
정을 놓고 중무장 하고 전장으로 떠났다.
전장에 나간 화랑전사들의 눈이 이글댄다.
경주 시민들은 9부 능선을 넘어 10부 능선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화랑전사들의 승진보 기다리고 있다.
승진보가 올린면 위대한 신라제국의 역사를 다시 쓴다.
'2025 APEC 대첩' 은 모두가 하나 되어 적 물리치는 치절한 싸움이다.

관련기사 2·3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 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2025 APEC 대첩’ 마지막 전투...경주 승전보 알린다



화랑전사 비장한 각오
마지막 전투 피의 혈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인천·제주 3파전...
10부 능선 깃발 꽂는다

마지막 전쟁이다.
‘2025 APEC 대첩’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동일체국의 나라 경주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세운다.
이것이 바로 화랑전사들의 역사다.
주낙영 총사령관은 마지막 전투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전의를 불태운다.
주 총사령관은 그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화
랑전사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유치
를 위한 최종 경쟁이 시작됐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전에 △
경주 △인천 △제주가 본격적으로 뛰어 들면서
마지막 혈전을 벌인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부산은 포기했다.
외교부는 오는 19일 공모신청서 접수 마감
을 시작으로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개최, 6월 중 개최도시를 선
정한다.
지난달 28일 외교부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세부 선정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것
이다.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공모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 2025 APEC 대첩 승리

경주시는 그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유
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력 대응해 왔다.
경주는 국제회의 도시를 넘어 국제관광도시
1번지다.
경주시는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를 성
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2025 APEC 회의에는 미·일·러·중을 비롯
해 21개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6000
여명이 방문한다. 2025 APEC 회의는 역
사문화와 경제 기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경주는 지방 균형 발전과 소규모 도시
개최라

는 APEC 이념 가치의 최적지다.
정상회의 개최 후보지인 경주 보문단
지에는 고층건물이 적고 회의장과 숙박
시설이 가까워 세계 정상들의 경호와
안전에 유리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보문단지에는 354개(1만1405실) 숙
박시설이 있다. 이 중 10곳에 달하는
164실은 바로 정상용 숙소로 활용
할 수 있다.
1시간대에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
능한 김해공항이 위치한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2시간 밖
에 걸리지 않아 교통 접근성도 좋다.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가 가장 한국다운 모습과 역
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불국사
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돼 있다.
대도시 못지 않게 중소도시도 경쟁
력 갖추고 있다.
그동안 개최된 정상회의 가운데 중
소도시는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
년), 인도네시아 발리(2013년), 베
트남 다낭(2017년) 등이 있다.
2005 APEC 에너지장관회의, 2012
년 APEC 교육장관회의, 2015년 세
계물포럼 등 16차례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정상회의를 유치하면 생산유발효과
97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654
억원, 취업유발효과 7908명 등이
기대된다.
결국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는 가장 한국적이고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로 정상 경호와 안전,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에서 최
적지다.
누가 뭐래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조

건이 딱 맞는 도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대한민국 대표도시 경주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관광 도시다.
준비된 국제회의도시로서 마이스
(MICE)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앞세
워,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전이다.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것
은 2014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인 1998년부터 세계 최초 도시 간
국제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으며, 이
는 전례없는 도시외교의 모범이
됐다.
2015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
가 개관한 이후에는 국제회의도시
로서 본격적인 마이스 산업 활성
화 전략을 펼쳐왔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
벤션, 전시의 영문 첫글자를 따 차
세대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
린다.
경주는 지난 수년간 APEC 교육장
관회의, 국제물포럼, 유엔 NGO
컨퍼런스, 세계유산도시 기구
총회, 세계인문학포럼 등 다양
한 분야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충분
한 역량도 이미 갖추고 있다.
2022년 국제컨벤션협회(ICA)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초자치단
체 중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
최한 도시가 바로 경주다.
그동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를 중심으로 1000여건이 넘는 크
고 작은 회의와 전시 개최로
숙련된 전문 인력의 노력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내부는 물론 외부 협력사들과
협력체계 또

한 잘 갖추고 있다.
2022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고도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가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에는 국제회의 이외에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4곳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코리아 유니크베뉴 3곳을 비롯
해 다양한 문화유산 컨텐츠와
함께 무한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역량이 있다.
경주는 주회의장인 화백컨벤
션센터를 중심으로 보문관광
단지 전체를 APEC 정상회의
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활
용한다.
APEC 사무국도 정상회의
숙박시설과 회의장까지 거
리나 동선이 수송과 경호
안전, 그리고 회의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보문단지는 숙박, 회의,
사무공간과 전시, 미
디어센터 등 모든 주
요시설을 가까운 거
리에 배치할 수 있어
정상회의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의 환경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문단지 내 집
적된 마이스 인프라
는 반경 3km 내 밀
집해 매우 짧은 동
선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정상회의
를 충분히 처리
할 시설과 경험,
역량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가 경
주에서 열린다면
그동안 경주가
키워온 마이스
산업 역량을 국
내외에 널리 알
리게 되고 더불어
국제회의도시 브
랜드 가치도 한
층 높아질 것
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낙영,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자신

원자력 미래차 중심의 영남권
산업벨트 중심 허브도시 강점
울산·포항·구미 등 산업대도시
연계 알찬 산업프로그램 제공
대한민국 원전과 에너지 정책
세계 알릴 최적 모멘텀 당위성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 개최도시 선정을 자신한다. 시는 정상회의 핵심 개최지가 될 경주보문관광단지는 도심의 변화가에서 약 5km 정도 이격된 독립된 구역으로 민간 인 출입 통제가 용이하다. 지형 특성상 항아리 모양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경호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PEC과 같은 국제적인 정상회의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경호와 안전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경호와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교통 통제와 각종 보안 요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

□ 경호 안전 입지조건이 최상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는 그야말로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미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렸는데 회담장소인 보문단지 일대가 경호에 최적이었기 때문이다.

정상회의가 열린 보문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3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이동 동선이 매우 짧다. 회의장과 숙소를 잇는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쉽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없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있어 완벽한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 특성상 경호와 안전에 대한 입지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한 경주는 안보문제에서 안전한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보문단지 전체가 APEC 정상회의에 최적화된 통제된 열린 회의장으로 정상 경호와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최적의 개최지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천년고도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을 선보이기 위한 적지 또한 경주다. 정상회의 유치 당위성으로 원자력에너지와 미래차 e-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학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경주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21개 회원국 중에는 상당수 개발도상국도 포함돼 있다.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끌어냈다.

□ 세계 혁신 원자력에너지산업 홍보
경북도와 함께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로서 인접한 울산의 완성차·조선분야, 포항의 철강·2차전지를 비롯해 도내 구미의 전자·반도체산업과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경주 자체만 보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자력 발전소,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가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있다.

이뿐 아니다. 중수무해제연구원, 양성자가속기센터,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다. 최근 SMR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에 우리 혁신 원자력에너지산업을 세일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끄는 대형 원전과 미래 원전 시장을 주도할 SMR 혁신 기술을 소개,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고 관련 연구와 투자를 통한 국내외 사업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산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는 대한민국의 원전과 에너지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놓고 경주·인천·제주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편 승부를 하고 있다.



저마다 개최도시로서의 경쟁과 명분을 내세워 유치를 사활을 걸고 있다. 경쟁도시 중에서 경주만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이다. 다른 도시는 모두 광역자치체로 정상회의 유치 경쟁에 있어 일각에서 말하는 정치 논리나 힘의 논리에서 본다면 경주는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쟁
경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선 보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다.

집적된 회의 인프라는 물론 경호 안전의 우수성과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접한 울산, 포항, 구미 등 산업대도시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하기에도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내세워 치열한 유치를 펼치고 있다.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핵심인 포용적 성장과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대도로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빼놓을 수 없는 경주의 남다른 유치 경쟁력이 바로 시민의 유치 열정과 의지라 할 수 있다. 경주시민은 천년고도 문화유산을 지켜온 자긍심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 또한 남다르다.

경주는 20년 전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자 도전했다가 성공을 목전에 두고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 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

과거 원전 이슈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방폐장을 수용한 것도 경주시민의 남다른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할 당시에도 인구 25만의 작은 지방도시 경주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여만에 목표인 100만을 달성했다.

11월까지 85일간 146만3874명의 서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나선 결과다.

□ APEC 정상회의 도시 경쟁
현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역 대도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이러한 시민의 열정과 의지가 아닐까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절박한 시민들의 뜻과 의지와 열정이 모인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모아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민의 눈에 띄는 유치 전략이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주목한다. 결맞은 사회 분위기로 조성된 이번 기회를 선진 시민의식과 관광문화 정착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그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상반기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재점검했다. 개최도시 시민의 준비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한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계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온 시민이 함께하는 계몽운동을 목표로 청탁하기, 주인의식 갖기, 공의 우선, 배려하기 등 선진시민의식 4대 과제를 정했다.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세계 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활환경, 교통, 행정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과제로 경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준비 태세를 확립한다. 개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 도시를 구축하는데 빈틈없다.

시는 부서별 성격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한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핵심 실천과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시민 현장 계몽운동, 시민 참여형 행사로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기울인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시민 각자는 물론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위기 넘어 국가소멸 공포

출산율 하락 영향요인 40%가량 여성경력단절 세 집중한 집 나혼자 주거문제 해결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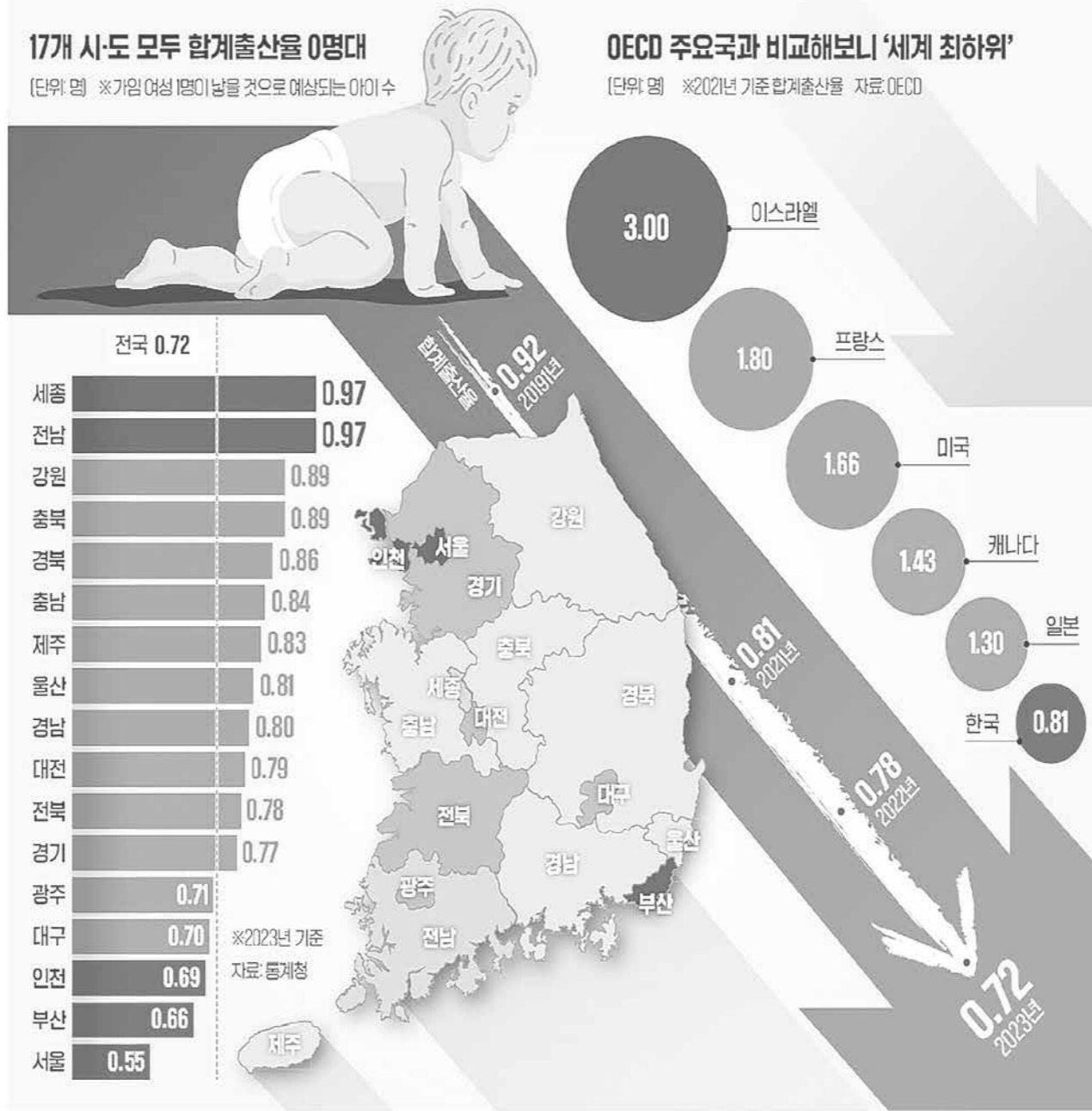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위기를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공포를 낳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더하다. 경북도를 중심으로 일선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40%가량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대응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17일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내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0.72명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다. 지역·기간에 따라 0.6명대 아래의 합계출산율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하



변하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각 연령별 청년여성이 육아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정도는 혼인·출산비중이 높은 30-34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격차가 줄어들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출산 부문을 포기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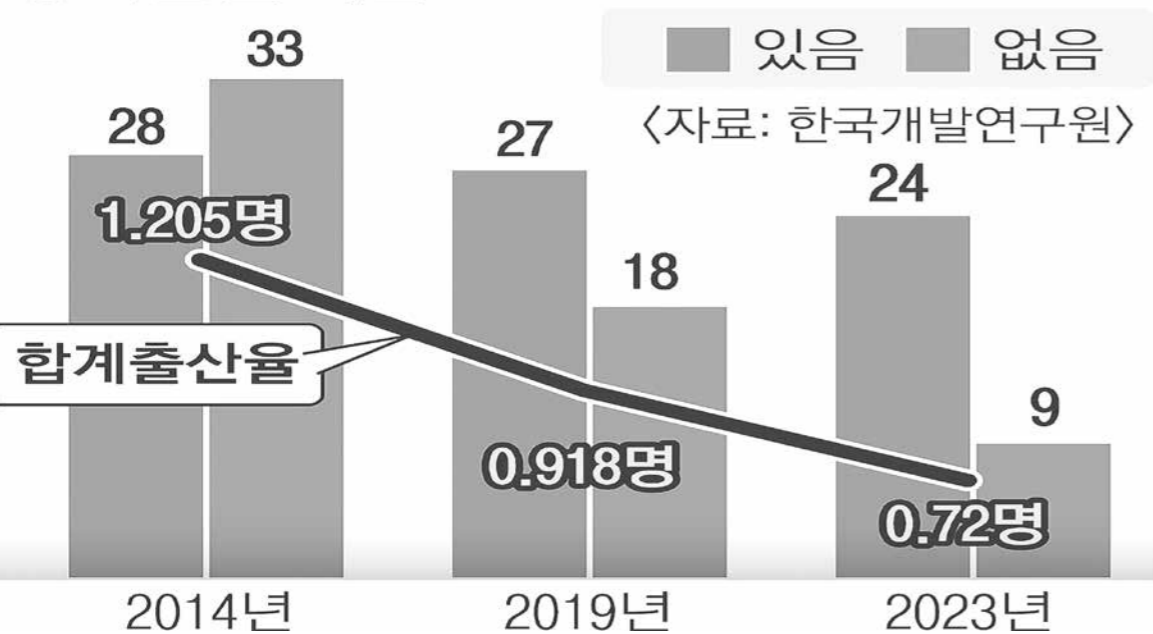
KDI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0-40대 유자녀 여성의 조산부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줄여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이나 사회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소득 증가를

이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로 계속 상승했다. 202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 가구 비율은 3.2%p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62.3%)이 남성(37.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2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25.7%) △50대(13.6%) △30대(13.1%) △30세 미만(10.8%)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체 1인 가구 과반인 66.4%를 차지했다. 혼인 상태는 사별이 37.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혼은 37.2%, 이혼 또는 별거는 20.6%로 나타났다.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 유배우 1인 가구는 4.4%였다. 1인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 분야(37.9%)였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강진 지원(10.1%) △가사 서비스 지원(10.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 비중은 2020년(42.4%)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37.6%)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돼 외로움'(23.3%)을 답한 비중은 3년 전 대비 6.9%p·4.5%p씩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균형 잡힌 식사',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나홀로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도 고충을 겪었다. 1인 가구 4명 중 1명(24.6%)은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고 편하게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여성(20.6%)보다 남성(31.3%), 60대(30.8%) 이상 고령층, 이혼 또는 별거(38.6%) 상태인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미흡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에 속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5년마다 실시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3년 만에 조사를 진행했다. 조미경 기자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단위: %)



락에 그쳤다. 2000년대 이후부터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과 출산율이 비례관계로 전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이 함께 오르면서다. 한국은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할 경우 잃는 손실이 큰 축에 속하는 나라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하락은 개인의 평생소득을 크게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34%였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이 비중은 3년 전보다 3.2%p 상승했다. 1인 가구는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점으로 '주거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7월 전국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2024 문경찾사발 축제 2024. 04. 27. (토) - 05. 06. (월)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일원

문경찾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개막식 2024. 04. 27. (토) 14:00 문경새재외공연장 일원

주최: MGS 문경시
주관: 문경새재관광개발사업부 문경찾사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문경도자기협회
행위: 문경중앙외 문경시지부 대구은행 문경지점

저출산 공포...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한 한 몫

모성보호법 위반, 4년 사이 8배 '급증' 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한 문제 심각 예산 투입...10년새 아동인구 200만 ↓ 과도한경쟁 불행한사회 꺼리는 출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3만 명이었다. 2012년까지만 해도 48만 명에 달한 출생아 수가 10여 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 기대도, 30대에 진입한 인구 70만 명대의 예코분 세대(1991~1996년생)가 저출산 반전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도 빛나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이후 최저였다.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2명을 기록했으나 2분기 0.71명, 3분기 0.71명, 4분기 0.65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까지도 출생아 수는 64만 명에 달했다.

이후 2010년에 이르러 출생아 수가 47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에 27만 명으로 줄며 10년마다 20만 명씩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 2021년 26만 562명으로 1만 775명 감소했다.

2022년 24만 9186명으로 1만 1376명 줄었다.

결국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1만 9200명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원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한이 한 몫한다.

실제 모성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하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현장의 간극이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육아휴직 장려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유연근무제 등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모성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825건이었다.

위반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스베우자 출산휴가(152건) △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120건)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4044건) △시간 외 근로 제한(51건) △임신·출산 관련 위반(458건) 등이 있다. 모성보호법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감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무리한 노동을 안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성보호법 위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에는 4년새 무려 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48건 △2020년 227건 △2021년 602건 △2022년 892건 △2023년 1856건 등이다.

'임신·출산 관련 위반' 건수가 '야간·휴일근로 제한' 다음으로 적발 사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부가 출산휴가 및 단축근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무리를 할 경우 몸 안의 생명이 지장이 가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출산휴가 및 단축근로를 제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아기를 뱃속에 품은 예비 엄마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 내 임신부 배려석인 '핑크카펫'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임신부가 앉기는 쉽지 않아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신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신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의 86.8%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워킹맘·워킹대디가 아이도 낳으면서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산부와 어린아이에 대한 기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매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매해 출생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자녀·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 여성들은 42%, 30대 여성들은 49%만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과 출산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들이 되려 가장 자녀 갖기를 꺼리는 셈이다.

2030 여성 10여명은 임신 및 출산을 내켜하지 않는 이유로 △경력 단절 △과도한 경쟁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혐오 등을 들었다.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1.6배(2.7%p) 상승한 셈이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70.0%)에 비춰보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2030 여성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여전히 적은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2023년 자녀·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중 1위는 경제적 부담(64%)이었

고 2위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61%)였다.

반면 20대 여성을 따로 보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힘든 사회라는 응답이 74%로 1위였고 30대 여성의 경우에도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응답이 63%로 평균보다 높았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8세로 10년 전인 2012년(30.5세)과 비교하면 2.3세나 늘었다.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올라갈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상한을 인상한 2014년과 2017년, 2018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1.2%p, 4.9%p, 4.4%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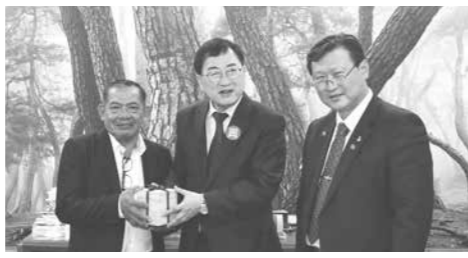
임신 기간 필요한 검사 및 입덧약, 영양제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경제적 지원에 더해 문화 개선 노력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미경 기자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볼리비아 전 대선 후보 정치현 박사일행, 경주시 방문

2019년 볼리비아 대선 후보였던 정치현 박사가 지난 16일 주낙영 경주시장을 예방했다. 시장실에서 만난 이들은 이 자리에 현지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정 박사의 배우자 김은화씨

와 볼리비아 현지 산 안토니오 데 로메리오 시의 엔젤 수마미(Angle Sumami) 시장도 함께했다. 정치현 박사는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부친을 따라 1982년 볼리비아로 이민을 떠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학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현재 볼리비아 우세볼대학병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방문단은 주 시장 예방에 앞서, 예교물센터에서 경주시 자체 개발 물질화기술(GJ-R)을 시찰했고 이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주시, 대학생 수도권 보금자리 연합기숙사 '첫 삽'...

교육부·국토부 소유 국유지 무상 제공 한수원 지원 사업비 460억 원 투입

이남철 고령군수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 큰 기부를 펼쳐 저출생과의 전쟁에 불을 붙

혔다. 이 군수는 16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5백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한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8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심각성과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온국민 공감대 조성 및 동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령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어 다자녀가정 양육 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매입인대주택공급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출생 극복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저출생 문제는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소멸의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령군이 경북도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동부사적지 일대 만개한 튜립을 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다.

경주에 튜립 양귀비 등 봄꽃 만개...

경주시, 시가지 봄꽃 조성 사업비 2억5000만원 투입

천년고도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동부사적지 '첨성대' 주변이 봄꽃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꽃들로 물들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시는 아름다운 꽃과 어우러진 사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동부사적지 △황룡사지 △분황사 △황남고분군 등 주요 사적지 4곳에 화훼를 식재했다. 봄꽃 조성을 위해 11만 7300㎡에 다양한 종류의 계절 화훼를 식재했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동부사적지 4만㎡ 공간에 튜립, 양귀비꽃, 금영화, 라넌쿨러스, 루피너스 등을 식재했고, 황룡사지 3만㎡에 청보리와 유채를 식재했다. 분황사 5300㎡에는 빨강색의 양귀비꽃을 식재했고, 황남고분군 4만 2000㎡에는 유채를 식재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들이 만개하면서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봄꽃들의 유혹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개한 겹벚꽃을 보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명활산성~진평왕릉에 이르는 총 길이 1.8km의 선덕여왕길도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맨발걷기가 흙을 밟으며 발바닥을 자극해 건강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운동으로 알려지면서 선덕여왕길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꽃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사적지와 더불어 꽃단지가 조성돼 있는 차별화되는 곳인 만큼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새달부터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여름꽃과 가을꽃 파종에 나선다.

"경로당 불박이 소파 너무 편안해요"

3억 예산 들여 80곳 소파 설치 맞춤형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경주시가 시행하는 경로당 불박이 소파 설치 사업이 연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예산 3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6월까지 경로당 80곳에 대해 1.2m 또는 1.8m 규모의 불박이 소파를 제작·설치한다. 사업은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좌식 생활로 인해 무릎과 척추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 28곳에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불박이 소파 설치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60여명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향후 경로당 전수조사 용역 자료를 참고해 연차적으로 지역 모든 경로당에 불박이 소파 설치 사업을 한다. 박명숙 동천 우방아파트 경로회장은 "소파 덕분에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척 편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경로당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보건의료인 소통의 장 마련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감시 체계강화 감염병 안전도시



경주시 보건소가 제52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보건교육장에서 지역 감염병 발생 점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질병정보 모니터링'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질병정보 모니터링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교육 및 복지시설·산업체 등이 연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간담회에는 지역 15개 병·의원, 20여 명의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먼저 그간 보건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의 주요 임무, 올해 변경된 감염병 분류 및 보고체계를 안내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논의를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질병청 보건소장은 "이번 보건 의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방환경개선사업 경주시 인기 상종가

경주시가 새달 10일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장 내 후드·덕트 환기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개보수 △진입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 △손씻기 시설 설치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휴게음식점 75개소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사업주 부담이다. 경주시는 예산 3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공감 복지도시 역량 강화...경주 건설

경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주시 역량강화 공동연수



경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0여명은 지난 16일 사회보장협의체 선도지역인 영주를 찾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 영주 풍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우수사례 공유와 운영 활성화 방안 제고 등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협의체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문화탐방 등의 교류 시간을 통해 민관과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시간이 보였다. 경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40여명의 위원을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 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